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최 나 래

신 나 나[†]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청소년의 공감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로에서의 성차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에 위치한 중학교 네 곳의 1,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413명(남학생 247명, 여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 청소년의 공감 및 학교적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0.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의 공감적 양육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공감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높은 학교적응으로 연결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학교적응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 양육자인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의 중요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공감적 양육, 청소년의 공감, 학교적응

* 본 논문은 2013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신나나,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210-750

E-mail: nanashin@ewha.ac.kr

지식, 가치관, 행동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은 조화롭고 성장하는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준비기이자 과도기로 생물학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에서의 적응은 현재의 학업적, 심리적, 사회적인 성장과 발달 뿐만 아니라(김지원, 2010; 배은경, 2011; 홍애순, 조규관, 2014; Bronstein et al., 1996), 청년기와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적응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예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박재산, 문재우, 2006; Guzik, Dorman, Groff, Altermatt, & Forsyth, 2004).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것은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돕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적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통계지표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2년도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업중단 원인으로 학업기피, 인간관계 악화,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이 45.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 이민 등 기타 이유 41.5%, 절도 및 이성교제 등으로 인한 품행문제가 1.1%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주요한 이유가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었다면(이혜경, 김현주, 2007), 최근에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

하는 학생들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학교에 대한 두려움, 좌절, 수치심 및 외로움을 경험하고(김혜래, 최승희, 2009), 가출, 무단결석, 약물남용 및 청소년 비행 등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으며(남영자, 박태영, 2009), 급기야 학업중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문제,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사례의 증가 추세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함을 보여주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선행 요인들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환경적 요인으로는 주로 사회적 지지(김지은, 2006; 남영옥, 이상준, 2008), 가족 및 부모의 영향(강유진, 문재우, 2005; 이종연, 김복미, 2012; 최용민, 원상숙, 2013; Barber, Bolitho, & Bertrand, 2001; Chu & Powers, 1995),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문호영, 문성호, 2007; 박은민, 2010; Baker, 2006) 등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이 중 부모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기 동안에도 여전히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부모의 공감적이고 긍정적인 양육은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 중요한 변인으로 강조되어 왔다. 부모의 공감적 양육은 부모가 자녀의 정서나 관점을 지각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지적인 공감적 양육과, 자녀의 정서를 공유하고 관심과 염려를 보이는 정서적인 공감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Kilpatrick, 2005),

자녀의 정서, 행동, 학습, 대인관계 발달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문승미, 2006; 박성희, 2002; Feshbach, 1987;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 Zahn-Waxler, Radke-Yarrow, & King, 1979). 청소년기 부모의 공감적 양육의 직접적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공감적인 부모는 부모-자녀 관계를 심리적으로 건강한 관계로 유지하며(Feshbach, 1987), 부모가 공감적이고,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였음을 보고(김지근, 이기학, 2008; 이종연, 김복미, 2012; 최인호, 김진이, 2013; Finkenauer, Engles, & Baumeister, 2005)하면서, 청소년기 부모의 공감적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부모 변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더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김복인, 이인수, 2013; 이종연, 김복미, 2012; 최인호, 김진이, 2013; Clark & Ladd, 2000; Soenens, Duriez, Vansteemkiste, & Goossens, 2007).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 주로 연구된 것은 자아존중감(김혜원, 2009; 배은경, 2011), 스트레스(김기순, 신선순, 2011;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 2013), 공감능력(배은경, 2011; 이경미, 2008; 최명자, 2006; Soenen et al., 2007) 등이며, 이 중 청소년의 공감은 부모의 공감적 양육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신건호, 2003; Eisenberg & Valiente, 2002; Strayer & Roberts, 2004), 대인관계와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박성희, 2004; 허영숙, 2010). 또한 청소년의 공감은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크다는 점(배은경, 2011)에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가 공감적 양육을 보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공감 수준이 높았으며, 부모의 공감은 직접적인 모델이 되어 자녀의 공감능력 발달을 촉진하였다(Chase-Lansdale, Wakschlag, & Brooks-Gunn, 1995; Eisenberg, Spinrad, & Morris, 2006; Hoffman, 2001). 반면,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이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지소라, 2009). 청소년의 공감은 또한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배은경, 2011; 홍기목, 2004; Soenens et al., 2007), 공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에서의 적응도가 높았고(배은경, 2011), 질적으로 좋은 우정관계를 형성하였으며(Soenens et al., 2007), 사회적 유능성이 높았다(홍기목, 2004).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고,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세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공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이와 유사한 변인을 이용하여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나타나고 있는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공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최인호, 김진이, 2013)에서는 어머니가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과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남학생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낮았고, 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졌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정화니와 조옥귀(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는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공감능력을 높임으로써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낮추고, 이로 인하여 교우관계나 학교애착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경, 2009). 국외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공감의 매개적 역할은 보고되고 있는데, 청소년의 공감이 어머니의 지지와 우정의 질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enens et al., 2007).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경로를 가정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청소년의 성에 따라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차이가 있으며(김현철, 김은정, 2007; Collins & Russell, 1991; Larson & Richards, 1994; Parke & Buriel, 1998),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 및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최인호, 김진이, 2013; Chen, Liu, & Li, 2011; de Kemp, Overbeek, de Wied, Engels, & Scholte,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각각의 공감적 양육을 측정하였으며,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의 의도나 행동이 아닌 자녀가 지각한 공감적 양육이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조용주, 2010a; Trumpeter, Watson, O'Leary, & Weathington, 2008), 부모가 보고한 양육행동보다 자녀가 지

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녀의 발달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김성일, 1998; Gecas & Schwalbe, 1986; Rohner & Pettengill, 1985)에 근거하여, 부모가 보고한 공감적 양육이 아닌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을 측정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공감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조용주, 정남운, 2009).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많은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공감적 양육의 전체적인 영향력(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장영애, 박정희, 2008; Laible, Carlo, & Roesch, 2004)을 살펴보거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문승미, 2006; 신건호, 2003; 이경남, 2003; 최인호, 김진이, 2013; Soenens et al., 2007; Walker & Cheng, 2007)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자녀의 공격성(황희정, 2013), 문제행동(Feshbach, 1987), 심리적 부적응(이지선, 이희경, 2011)과 같은 부정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자녀의 긍정적인 심리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근거로,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경로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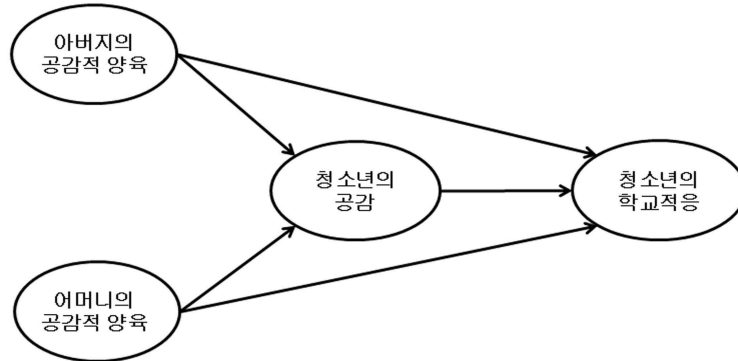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공감적 양육 및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관한 연구모형

연구문제 1. 아버지 및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은 학교적응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1-1. 아버지 및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은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1-2. 아버지 및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은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 및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인천시 소재 네 곳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청소년 413명이다. 연구대상을 중학교 1, 2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성공적인 학교적응이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지

만(Rutter, 1985), 학업에 대한 부담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학교적응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중학교 시기이기 때문이다(김용희, 1988; 이규미, 2005).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학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247명(59.8%), 여학생이 166명(40.2%)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학년 구성은 1학년이 162명(39.2%), 2학년이 251명(60.8%)으로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출생순위의 경우 외동이가 53명(12.8%)이었으며,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146명(35.2%), 둘째 171명(41.4%), 셋째 이상 41명(9.9%)으로 둘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362명(87.7%), 대가족이 51명(12.3%)으로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45~49세가 187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40~44세가 115명(27.8%)으로 그 다음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40~44세가 205명(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5~49세가 136명(32.9%)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211명(51.1%)과 201명(48.7%)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111명(26.9%)과 143명(34.6%)으로 그 다음이었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174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으로 61명(14.8%)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인 경우가 191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으로 72명(17.4%)이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 청소년의 공감 및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청소년에 의해 응답되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은 조용주(2010b)가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에 관한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요소에는 정서지각(5문항)과 관점수용(5문항)이, 정서적 요소에는 공감적 정서반응(5문항), 냉담한 정서반응(5문항) 및 과민 정서반응(5문항)이 포함된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정서지각의 경우 ‘아버지(어머니)는 내 표정만 보고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아신다.’;

등이 있고, 관점수용의 경우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시험이 끝난 다음 친구들과 노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 등이 있다. 공감적 정서반응은 ‘아버지(어머니)께 내게 생긴 신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면 같이 좋아하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냉담한 정서반응에는 ‘아버지(어머니)는 내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신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과민 정서반응의 문항의 예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대한 걱정과 불안이 지나치신 것 같다.’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을 각각 측정하였다. 각 하위요인에서 방향성이 다른 문항은 역채점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 별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아버지의 경우, 정서지각 .83, 관점수용 .75, 공감적 정서반응 .83, 냉담한 정서반응 .78, 과민 정서반응 .56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정서지각 .81, 관점수용 .80, 공감적 정서반응 .81, 냉담한 정서반응 .79, 과민 정서반응 .65이었다. 과민 정서반응의 경우 신뢰도가 낮고, 다른 연구들(김희성, 2011; 조용주, 2010a, 2010b)에서 보고된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공감적 양육의 다른 요인들과 상관이 낮아($r_s = -.18 \sim .05$) 과민 정서반응을 제외한 4가지 요인만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공감

청소년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Davis (1980)의 대인관계반응척도(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를 김성은(1997)이 중학생용으로 변

안 · 수정한 ‘청소년 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 공감 척도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영역에는 두 개의 하위요인이 포함되는데, 인지적 공감에는 관점 취하기(7문항)와 상상하기(7문항)가, 정서적 공감에는 공감적 관심(7문항)과 개인적 고통(7문항)이 포함되어, 총 4개 하위요인의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관점 취하기의 경우 ‘친구가 화를 낼 때 나는 그 친구가 왜 화를 내는지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등이 있으며, 상상하기의 경우 ‘나는 좋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까?”하고 생각해 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감적 관심의 경우 ‘발을 다쳐서 절룩거리는 사람이 계단을 힘들에 올라가고 있으면 부축해 주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 등의 문항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개인적 고통의 경우 ‘친구가 다른 친구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하면 나도 같은 기분이 되어 속상해진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방향성이 다른 문항은 역채점 한 후 각 요인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특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관점취하기 .75, 상상하기 .85, 공감적 관심 .76, 개인적 고통 .60이었다.

학교적응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이규미(2005)가 개발하고 타당화(이규미, 김명식, 2008) 한 ‘중학생의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8문항으로 학교공부(8문항), 학교친구(10문항), 학교교사(10문항), 학교생활(10문항)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 2개의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각 영역별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학교공부 영역에는 학업유능감과 학업가치가, 학교친구 영역에는 긍정적 친구관계와 친구와의 상호협조성이, 학교교사 영역에는 교사에 대한 호감과 교사에 대한 친밀감이,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에는 질서와 규칙 준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포함된다. 본 척도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강창실, 2008; 배은경, 2011)에서 4가지 대영역을 하위요인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4가지 대영역을 하위요인으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학교공부의 경우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등이 있으며, 학교친구에는 ‘나에게는 고민을 나눌 학교친구가 있다.’ 등이 있다. 학교교사에는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학교생활은 ‘나는 학교물건을 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학교공부 .82, 학교친구 .87, 학교교사 .87, 학교생활 .83이었다.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조사절차

본 조사는 2013년 12월 중에 서울시 두 개의 구와 인천시 두 개의 구에 위치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교의 담당자와 전화연락 후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교실에 방문하여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거나 각 담임교사의 지시 하에 아동이 직접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배부한 500부를 모두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55부)와 이혼이나 별거와 같이 양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23부), 부모님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돌아가신 경우(9부)를 코딩에서 제외한 후, 총 41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예비분석으로 성차와 학년차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청소년의 공감이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과 경로에서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 및 학교적응에서의 성차와 학년차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공감적 양육의 하위요인인 정서지각($t = 2.63, p < .01$)과 청소년 공감의 세 하위요인인 관점취하기($t = -2.88, p < .01$), 상상하기($t = -4.80, p < .001$), 개인적 고통($t = -5.17, p < .001$)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의 정서지각 수준(남학생: $M = 2.82, SD = 0.56$, 여학생: $M = 2.66, SD = 0.65$)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관점취하기(여학생: $M = 2.98, SD = 0.42$, 남학생: $M = 2.86, SD = 0.44$), 상상하기(여학생: $M = 3.05, SD = 0.61$, 남학생: $M = 2.76, SD = 0.59$), 개인적 고통(여학생: $M = 2.57, SD = 0.38$, 남학생: $M = 2.36, SD = 0.42$)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변인에서는 남녀 간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학년에 따른 연구변인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감 및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1). 먼저,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의 모든 하위요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표 1.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 및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413)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u>아버지 공감적 양육</u>																
1. 정서지각	-															
2. 관점수용	.59***	-														
3. 공감적 정서반응	.74***	.61***	-													
4. 냉담한 정서반응	-.53***	-.60***	-.61***	-												
<u>어머니 공감적 양육</u>																
5. 정서지각	.54***	.39***	.46***	-.32***	-											
6. 관점수용	.32***	.39***	.27***	-.33***	.56***	-										
7. 공감적 정서반응	.53***	.43***	.56***	-.36***	.77***	.64***	-									
8. 냉담한 정서반응	-.34***	-.34***	-.35***	.49***	-.53***	-.69***	-.62***	-								
<u>청소년의 공감</u>																
9. 관점 취하기	.36***	.25***	.37***	-.24***	.46***	.24***	.43***	-.26***	-							
10. 상상하기	.25***	.14**	.29***	-.12**	.26***	.12**	.29***	-.11*	.34***	-						
11. 공감적 관심	.35***	.25***	.35***	-.24***	.40***	.23***	.40***	-.24***	.57***	.44***	-					
12. 개인적 고통	-.00	-.10	-.01	.10*	.09	-.12*	.03	.15**	.13**	.26***	.11*	-				
<u>학교적응</u>																
13. 학교공부	.47***	.31***	.44***	-.31***	.52***	.36***	.56***	-.38***	.52***	.38***	.49***	.03	-			
14. 학교친구	.46***	.36***	.47***	-.33***	.50***	.35***	.49***	-.38***	.52***	.38***	.48***	.04	.64***	-		
15. 학교교사	.41***	.24***	.39***	-.27***	.46***	.32***	.45***	-.30***	.43***	.22***	.39***	.05	.58***	.48***	-	
16. 학교생활	.46***	.32***	.47***	-.32***	.48***	.32***	.51***	-.35***	.59***	.39***	.51***	.11*	.74***	.70***	.60***	-
M	2.76	3.21	3.10	2.00	3.06	3.04	3.24	1.94	2.91	2.88	2.96	2.45	2.97	3.24	2.83	3.06
SD	0.60	0.56	0.55	0.58	0.54	0.63	0.50	0.60	0.44	0.62	0.43	0.42	0.48	0.45	0.54	0.43

* $p < .05$, ** $p < .01$, *** $p < .001$.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은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인 학교공부, 학교 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과 유의한 정적 상관($r_s = .24 \sim .56, p < .001$)을, 냉담한 정서반응은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부적상관($r_s = -.27 \sim -.38, p < .001$)을 보였다. 즉, 부모의 공감적 양육을 더 잘 지각할수록 청소년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더 잘 적응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공감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공감의 하위요인인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은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인 학교공부, 학교 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과 유의한 정적 상관($r_s = .22 \sim .59, p < .001$)을 보였지만, 개인적 고통은 학교생활과만 정적 상관($r = .11, p < .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의 관점을 잘 수용하고, 상상하며, 공감적 관심을 잘 느낄수록 학교적응의 모든 측면에서 잘 적응하였으며, 타인의 상황에 대해 개인적 고통을 더 느낄수록 학교생활을 잘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의 하위요인 중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은 청소년 공감의 하위요인인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과 정적 상관($r_s = .14 \sim .37, p < .01$ 또는 $p < .0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고통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냉담한 정서반응의 경우에는 청소년 공감의 하위요인인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과는 부적 상관($r_s = -.12 \sim -.24, p < .05$ 또는 $p < .001$)을, 개인적 고통과는 정적 상관($r = .10, p < .05$)을 보였다. 어머니 공감

적 양육의 하위요인 중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은 청소년의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과 정적 상관($r_s = .12 \sim .46, p < .01$ 또는 $p < .01$)을 보여 아버지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보였지만, 어머니의 관점수용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개인적 고통과 부적 상관($r = -.12, p < .05$)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공감의 하위요인 중 냉담한 정서반응은 청소년의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과는 부적 상관($r_s = -.11 \sim -.26, p < .05$ 또는 $p < .001$)을 보였으며, 개인적 고통과는 정적 상관($r = .15, p < .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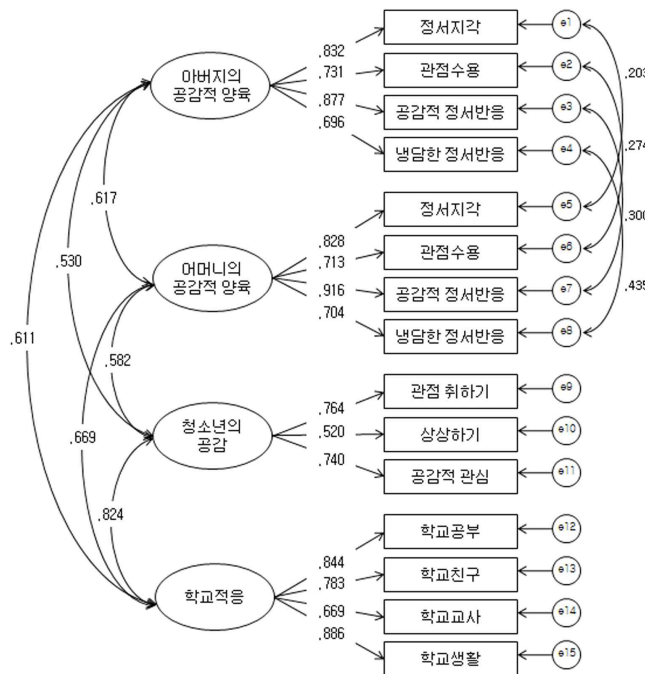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행동, 청소년의 공감 및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공감적 양육 중 냉담한 정서반응은 측정변인 간의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역코딩하였으며,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행동의 경우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각 하위요인 간 오차 간 공분산을 연결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df ,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평가하였다. 적합도 평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χ^2 값이 유의하지 않고 χ^2/df 의 값이 3보다 작을 때(Kline, 1998)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

할 수 있으나, χ^2 값은 표본의 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 중 GFI, NFI, TLI, CFI의 값은 .90 이상일 경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홍세희, 2000), RMSEA는 .05 이하일 때 적합하고 .08 이하일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 = 282.087(df = 94, p < .001)$, $\chi^2/df = 3.001$, NFI = .926, TLI = .935, CFI = .949, RMSEA = .070(90% CI = .060, .079)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하지만 잠재변인인 청소년의 공감에서 개인적 고통으로의 요인부하

량(β)이 .16으로 낮아 이를 제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송지준, 2009).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19.926(df = 80, p < .001)$, $\chi^2/df = 2.749$, NFI = .941, TLI = .949, CFI = .961, RMSEA = .065(90% CI = .055, .076)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회귀계수는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520 ~ .916으로 나타나 변수를 측정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그림 2).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계수(β)임.

그림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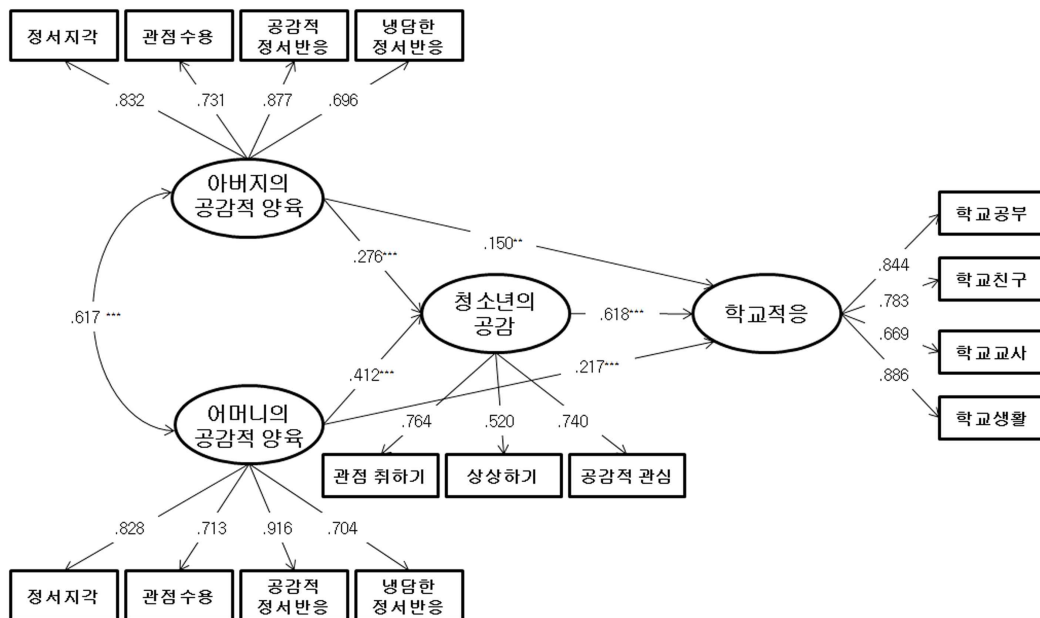
구조모형 분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hi^2 = 219.926(df = 80, p < .001)$, $\chi^2/df = 2.749$, NFI = .941, TLI = .949, CFI = .961, RMSEA = .065(90% CI = .055, .076)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그림 3).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경로는 유의하였다(부: $\beta = .150, p < .01$, 모: $\beta = .276, p < .001$). 즉, 청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감적 양육을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경로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은 청소년의 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부: $\beta = .276, p < .001$, 모: $\beta = .412, p < .001$), 청소년의 공감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618, p < .001$).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공감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높은 학교적응으로 연결되었다.

다음으로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

다음으로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



** $p < .01$, *** $p < .001$.

그림 3. 부모의 공감적 양육 및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2. 부모의 공감적 양육, 청소년의 공감 및 학교적응 간의 인과적 효과

잠재변인 간의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 → 학교적응	.150***	.171**	.321**	.745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 → 학교적응	.217***	.254**	.471**	
청소년의 공감 → 학교적응	.618***	-	.618**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 → 청소년의 공감	.276***	-	.276**	.386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 → 청소년의 공감	.412***	-	.412**	

주 1)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에 의한 결과임.

2)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다중상관치임.

* $p < .05$, ** $p < .01$, *** $p < .001$.

다(표 2). 그 결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청소년의 공감이었으며($\beta = .618, p < .01$),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행동($\beta = .471, p < .01$),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행동($\beta = .321, p < .01$)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beta = .412, p < .01$)은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beta = .276, p < .01$)보다 청소년의 공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부: $\beta = .171, p < .01$, 모: $\beta = .254, p < .01$). 이어서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보았으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은 함께 학교적응을 74.5% 설명하였다. 또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의 청소년의 공감에 대한 설명력은 38.6%이

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의 성차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 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3). 요인부하량과 구조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모형 A),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제약모형(모형 B), 그리고 요인부하량과 구조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구조제약모형(모형 C), 즉 세 개의 내재화된 모형(nested models)을 설정하여 각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요인부하량과 구조계수가 남녀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비제약모형(모형 A)과 측정제약모형(모형 B)을 비교한 결과, $\Delta\chi^2 = 17.703, \Delta df = 11, p > .05$ 로 두 모형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간명한 모형인 측정제약모형을 선택하였

표 3.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에서의 성차

모형	χ^2	df	χ^2/df	CFI	NFI	TLI	RMSEA (LO90~HI90)
A	307.935***	160	1.925	.959	.920	.946	.047 (.039~.055)
B	325.638***	171	1.904	.957	.915	.948	.047 (.039~.055)
C	381.943***	186	2.053	.946	.900	.939	.051 (.043~.058)
모형 A:B χ^2 값의 차이검증	$\chi_B^2 - \chi_A^2 = 17.703$		$df_B - df_A = 11$		$p > .05$		
모형 B:C χ^2 값의 차이검증	$\chi_C^2 - \chi_B^2 = 56.305$		$df_C - df_B = 15$		$p < .001$		

주 A: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B: 측정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we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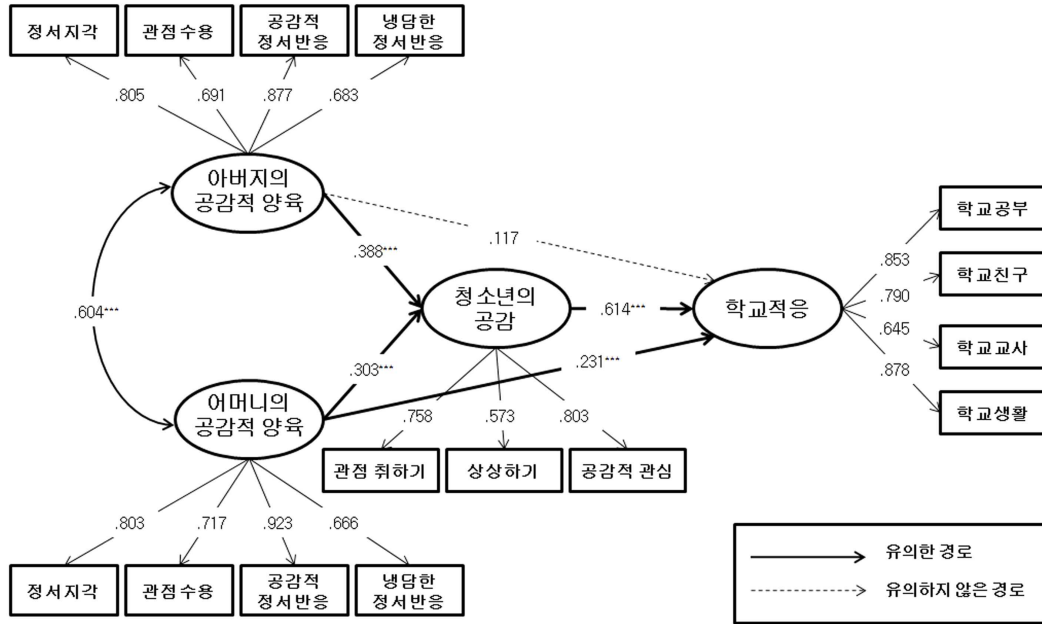
C: 구조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weights, structural weights)

*** $p < .001$.

으며, 이는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이 남녀청소년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측정제약모형(모형 B)과 구조제약모형(모형 C)을 비교 분석한 결과, $\Delta\chi^2 = 56.305$, $\Delta df = 15$,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잠재변인 간의 경로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게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을 분리하여 각각의 경로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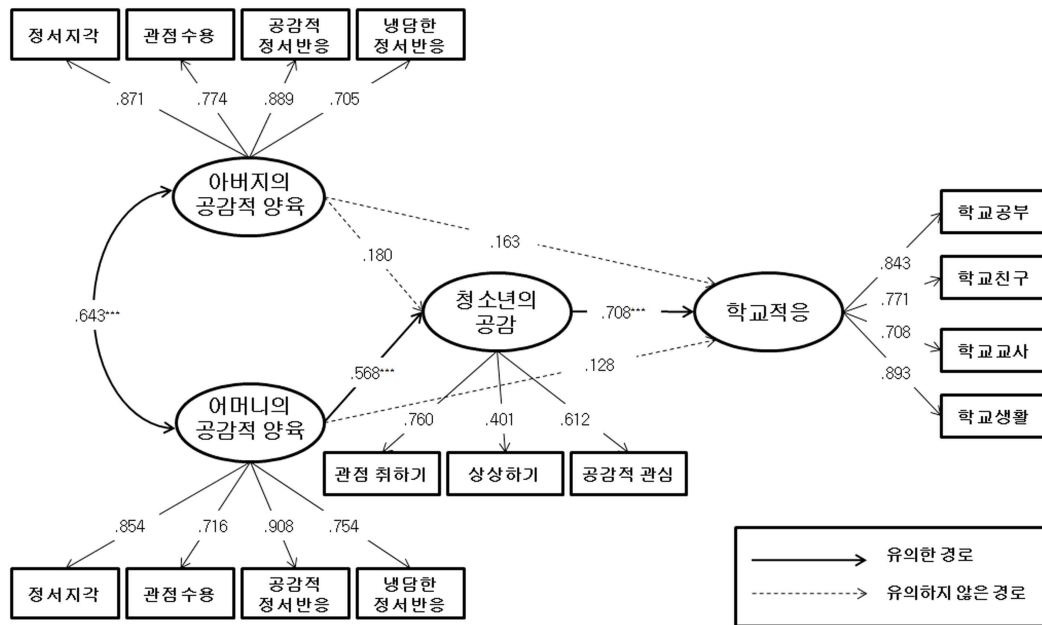
먼저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

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beta = .231$, $p < .001$),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 모두가 남자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었고(부: $\beta = .239$, $p < .01$, 모: $\beta = .186$, $p < .01$),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만이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beta = .402$, $p < .01$).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beta = .614$, $p < .001$, 여학생: $\beta = .708$, $p < .001$).



*** $p < .001$.

그림 4. 부모의 공감적 양육 및 남자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p < .001$.

그림 5. 부모의 공감적 양육 및 남자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논 의

본 연구는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로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공부, 교우 및 교사관계, 학교질서를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이고 공감적인 양육이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김수정, 박금주, 2013; 김지근, 이기학, 2008;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 2012; 이종연, 김복미, 2012; Chu & Powers, 1995)과 일치하며,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최인호, 김진이, 2013)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공감적인 부모의 자녀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보이고(Zahn-Waxler et al., 1979),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문승미, 2006)과 우울 및 스트레스(서석남 외, 2012; Trumper et al., 2008)는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환경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이숙영, 2012; 이승연, 2009; 임정화, 전종설, 2012)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해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Collins & Russell, 1991; Trumper et al., 2008). 비록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에 비해 그 영향력은 작았지만,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 역시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 또한 청소년 자녀의 사회화에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 변화와 부부공동 양육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을 돕고 건강한 사회적 적응을 이루는 일에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 역시 중요하며, 부모의 공감적 양육 모두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과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 모두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를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은 모두 청소년의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 또한 높은 공감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공감적인 양육을 할수록 자녀의 공감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Eisenberg & Valiente, 2002; Strayer & Roberts, 2004)과 일치한다. 또한 부모가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공감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공감능력을 높이며(강정희, 2008),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을 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공감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최인호, 김진이, 2013)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공감은 모델이 되어 자녀의 공감을 발달시킨다는 점(Chase-Lansdale et al., 1995; Hoffman, 2001)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일차적 환경이 되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잘 알아차리고, 자녀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자녀의 정서를 공유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등의 공감적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청소년 자녀의 공감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공감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감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학교에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였고(배은경, 2011), 학업성취도가 높으며(최명자, 2006),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Clark & Ladd, 2000), 우정의 질 또한 좋은 것으로(Soenens et al., 2007) 나타난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는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공격성(김정미, 2009)과 높은 친사회적 행동(권주현 · 박영신, 2013; Hoffman, 2001)을 보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높은 사회적 유능성(김정은,

도현심, 김민정, 김재희, 2013; 홍기묵, 2004)을 지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래 및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유능감을 바탕으로 학업,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해 높은 학교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 모두 청소년의 공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감적 양육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상대방의 관점을 인지하고 이를 공유하려는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높았으며, 이를 통해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남학생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함을 보여준 연구 결과(최인호, 김진이, 2013)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공감이 어머니의 지지와 우정의 질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Soenens et al., 2007)와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우정의 질 사이에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Clark & Ladd, 2000)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공감적인 양육을 보일 때 청소년 자녀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학업적 유능감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적응을 더 잘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이 학교적

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남녀 청소년 모두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간접적 영향의 경우에는 성차가 있었는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이 자신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이 학교적응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쳤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이 자신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쳤다.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와 청소년의 성에 따라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에게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은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주양육자로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상호작용이 빈번하여 자녀와 교류를 더 많이 한다는 보고(김현철, 김은정, 2007)에 근거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경우 자녀들과 상호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 결과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자기 자신과 동일한 성을 가진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하여 이를 내면화시킨다는 Bandura(1986)의 제안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행동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공감수준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좀 더 탐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의 영향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분석하는 후속 연구들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은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서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 및 학교적응에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이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음이 밝혀져, 이 시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감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도움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이 자녀의 발달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김성일, 1998; 조용주, 2010a; Gecas & Schwalbe, 1986; Rohner & Pettengill, 1985)를 기초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부모의 공감적 양육 수준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뿐만 아니라 부모 보고나 관찰을 통한 실제적인 공감적 양육을 함께 측정하여 이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지의 모든 문항들이 청소년에 의해 보고되었기 때문에 변인간의 관련성이 과잉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 또래 등의 다양한 보고자들을 대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 소재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집단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은 각각 247명, 166명으로 집단의 비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성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년에서도 나타나 1학년보다 2학년의 비율이 더 많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남녀 비율이나 학년 비율을 유사하게 맞추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각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관점에서 연구를

설계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 비교적 덜 관심을 받아온 공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공감능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공감적 양육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공감 관련 연구를 확장하고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력만을 보거나 부모로 통합하여 그 영향을 살펴본 반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감 및 학교적응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의 영향력을 한 모형에서 분리된 경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으며, 주 양육자인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 또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청소년 기에도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뿐 아니라 청소년의 개인 변인인 공감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의 공감이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모의 공감보다 청소년의 공감이 더 큰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높은 학교적응을 위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을 높이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공감증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과 심리 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문재우 (2005).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6.
- 강정희 (2008).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격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창실 (200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교육통계서비스.
- 권주현·박영신 (2013). 마음이해와 공감이 독재자 계입에 나타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117-138.
- 김기순·신선순 (2011).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융합연구, 9(3), 94-111.
- 김복인·이인수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행복과의 관계: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6), 195-218.
- 김성일 (1998).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공감 발달. 청소년학연구, 5(1), 21-51.
- 김성은 (1997). 학생의 감정공명과 학업성적, 학급 내 사회성, 학교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곽금주 (2013). 3세부터 7세까지 어머니의 애정/온정적 양육태도의 변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1-19.
- 김용희 (1988).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과정과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2009).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내적통제성과 공감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37-56.
- 김정미 (2009). 고교생의 공감, 또래영향력,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47(1), 49-72.
- 김정은·도현심·김민정·김재희 (2013).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공감 능력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4(3), 129-150.
- 김지근·이기학 (2008). 지각된 부, 모의 양육태도 조합패턴과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9(3), 1183-1200.
- 김지은 (2006).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2(1), 53-78.
- 김지원 (2010). 초등학생의 인터넷 환경요인과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적응력 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철·김은정 (2007).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래·최승희 (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체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0, 159-182.
- 김혜원 (2009). 청소년의 부적응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재조명. 미래청소년학회지, 6(3), 1-22.
- 김희성 (2011). 부모의 공감능력이 청소년의 공감

- 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옥 · 이상준 (2008). 일반청소년과 시설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5(1), 1-18.
- 남영자 · 박태영 (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4), 47-71.
- 문승미 (2006).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정서조절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호영 · 문성호 (2007).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2), 167-186.
- 박은민 (2010).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75-88.
- 박성희 (2002). 친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40(1), 51-74.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박재산 · 문재우 (2006).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 내 갈등과 건강보호행동으로서의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인과관계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3(2), 91-107.
- 배은경 (2011).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1), 85-100.
- 서석남 · 이상구 · 임상호 (2012).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8), 327-333.
- 성순옥 · 박미단 · 김영희 (2013).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49-70.
- 송지준 (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 21세기사.
- 신건호 (2003). 어머니와 자녀의 인간지향적 관계가 자녀의 조망수용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과학논집, 12, 87-102.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규미 ·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경남 (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11, 197-214.
- 이경미 (2008). 아동의 공감적 특성과 학업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영 (2012).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117-145.
- 이승연 (2009).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연 · 김복미 (2012). 여중생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45-263.

- 이재성·문영경·최형임 (2012).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233-246.
- 이지선·이희경 (2011). 부모-자녀 갈등과 공감 이 용서 및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 199-223.
- 이혜경·김현주 (2007).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청소년시설환경*, 5(2), 29-42.
- 임정화·전종철 (201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남·여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169-190.
- 장영애·박정희 (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69-85.
- 정화니·조옥귀 (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행동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존감의 역할. *교육이론과 실천*, 21, 87-114.
- 조용주 (2010a).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23-1146.
- 조용주 (2010b).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조용주·정남운 (2009). 부모 공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15-941.
- 지소라 (2009).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자 (2006). 초등학생의 공감능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용민·원상숙 (2013).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 199-216.
- 최인호·김진이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 청소년의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81-102.
- 황희정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감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영숙 (2010). 초등학생의 공감하기, 체계화하기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기묵 (2004).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9(1), 161-177.
- 홍애순·조규관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이 학교행복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 45-68.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ber, J. G., Bolitho, F., & Bertrand, L. (2001). Parent-child synchrony and adolescent adjustment.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8(1), 51-64.
- Baker, J. A. (2006). Contributions of teacher-child

- relationships to positive school adjustment dur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 211-229.
- Bronstein, P., Duncan, P., D'Ari, A., Pieniadz, J., Fitzgerald, M., Abrams, C. L., Frankowski, B., Franco, O., Hunt, C., & Cha, S. Y. O. (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ng middle schoo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Family Relations, 45*(4), 415-426.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Beverly Hills, CA: Sage.
- Chase-Lansdale, P. L., Wakschlag, L. S., & Brooks-Gunn, J. (1995). A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caring in children and youth: The role of the family. *Journal of Adolescence, 18*, 515-556.
-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485-498.
- Collins, W. A., & Russell, G. (1991).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1*(2), 99-136.
- Chen, X., Liu, M., & Li, D. (2011).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dulgence and their relations to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3), 401-419.
- Chu, L., & Powers, P. A. (1995). Synchrony in adolescence. *Adolescence, 30*, 453-461.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e Kemp, R. A. T., Overbeek, G., de Wied, M., Engels, R. C. M. E., & Scholte, R. H. J. (2007). Early adolescent empathy, parental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Research and Theory on Human Development, 168*(1), 5-18.
- Eisenberg, N., Spinrad, T. L., & Morris, A. (2006). Empathy-related responding in children. In M. Killen & J.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517-549).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Eisenberg, N., & Valiente, C. (2002). Parenting and children's prosocial and moral development.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Vol. 5, pp.111-14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eshbach, N, D. (1987). Parental empathy and child adjustment/maladjust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271-291). New York, 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nkenauer, C., Engels, R. C. M. E., & Baumeister, R. F. (2005). Parenting behaviour and adolescent behavioural and emotional problems: The role of self-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58-69.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37-46.
- Guzick, D. T., Dorman, W. J., Groff, T. S.,

- Altermatt, E. R., & Forsyth, G. A. (2004). Fostering social interest in schools for long-term and short-term outcomes.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60*(4), 361-378.
- Hoffman, M. L. (2001). Toward a comprehensive empathy-based theory of prosocial moral development. In A. C. Bohart & D. J. Stipek (Eds.),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behavior: Implications for family, school and society* (pp. 61-8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ilpatrick, K. L. (2005). The parental empathy measure: A new approach to assessing child maltreatment risk.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4), 608-620.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7*, 703-716.
- Larson, R. W., & Richards, M. H. (1994). Family emotions: Do you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experience the same stat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4), 567-583.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r, S., & Keehn, D.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1), 39-47.
- Parke, R. D., & Buriel, R. (1998). Socialization in the family: Ethnic and ecological perspectives.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pp. 429-504). New York, NY: Wiley.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oenens, B., Duriez, B., Vansteenkiste, M., & Goossens, L. (2007).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mpathy-related responding in adolescence: The role of maternal supp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3), 299-311.
- Strayer, J., & Roberts, W. (2004). Children's ang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pathy: Relations with parents'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renting practices. *Social Development, 13*, 229-254.
- Trumpeter, N. N., Watson, P. J., O'Leary, B. J., & Weathington, B. L. (2008). Self-functioning and perceived parenting: Relations of parental empathy and love inconsistency with narcissism, depression,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1), 51-71.
- Walker, L. O., & Cheng, C. Y. (2007). Maternal empathy, self-confidence, and stress as antecedents of preschool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for Specialists in Pediatric Nursing, 12*(2), 93-104.
- Zahn-Waxler, C., Radke-Yarrow, M., & King, R.

A. (1979).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ward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

1차원고접수 : 2014.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4. 11. 30.

최종게재결정 : 2014. 12. 03.

The effects of Empathic Parenting and Adolescents' Empathy on School Adjustment

Na Rae Choi

Nana Sh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empathic parenting on school adjustment. A total of 413 middle school students (247 boys and 166 girls) responded to questions regarding their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empathic parenting, their own empathy, and school adjustment. First, empathic parenting had a direct effe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dolescents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empathic parenting exhibited higher levels of school adjustment. Second, empathic parenting had an in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through adolescents' empathy. Adolescents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empathic parenting demonstrated higher levels of empathy, and adolescents who reported higher levels of empathy demonstrated better school adjustment. Finally, multi-group analyse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both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from empathic parenting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oth environmental and individual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together to explain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Key words : *empathic parenting, adolescents' empathy, school adjustment*